

소통으로 신뢰받는 의회 함께 만드는 행정수도 세종			
 세종 특별자치시의회		보도자료	
제공일자	2026. 9. 29.(화)	사진 · 영상	사진(O), 영상()
보도일자	2026년 9월 29일(화)부터		
담당부서	의회운영위원회	담당자	박대중 전문위원(044-300-7410)
			김희수 주무관(044-300-7416)

세종시의회-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 정책간담회 개최

- 조직·예산·의정지원 등 의회 운영 현안 공유...지속적인 정책 협력 뜻 모아 -

세종특별자치시의회 운영위원회(위원장 김현미)는 28일 세종시의회를 방문한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회(위원장 이병도)와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지방의회 운영 현안과 양 의회 간 교류·협력 방안을 논의했다.

이번 간담회는 양 의회가 지방의회 운영 경험과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지속적인 교류·협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.

이날 간담회에서는 지방의회의 조직·인력 운영, 예산, 의원 의정활동 지원 및 전문성 강화 방안 등을 중심으로 의견을 나눴다. 특히 지방의회의 역할과 책임이 확대되는 만큼 의원들의 충실한 의정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조직·인력과 의정지원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.

또한 서울과 세종의 정책 경험과 자원을 공유하고 문화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의회 차원의 협력사업을 발굴하는 등 교류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.

김현미 세종시의회 운영위원장은 “운영위원회는 의회의 조직과 인력, 예산, 의원들의 의정활동 지원 등 의회 운영의 기반을 마련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”며 “서울시의회와 세종시의회가 각자의 경험과 제도를 공유하고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역량을 함께 높이길 기대한다”고 말했다.

이어 “서울과 세종 간 문화교류를 비롯해 양 의회가 함께할 수 있는 정책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이번 만남이 일회성 교류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협력으로 이어지길 바란다”고 덧붙였다.

이병도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은 “이번 간담회를 통해 양 의회가 의정 경험과 운영 사례를 공유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”며 “앞으로도 양 의회 간 교류와 협력이 더욱 활발해지길 기대한다”고 말했다.

한편, 이번 방문은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 세미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됐다. 서울시의회에서는 이병도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의원 10명과 운영전문위원실 직원 등 총 19명이, 세종시의회에서는 김현미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의원 6명과 운영전문위원실 직원 등 총 13명이 참석했다.